

영광군, 2020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창출로 지역 정착 유도 전남형 블루이코미 인턴사업 추진

영광군은 올해 7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청년 지원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영세한 마을사업장의 소득 증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또한, 블루이코미 핵심 기업에 대한 선도인력 매칭을 위해 전남형 블루이코미 인턴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촉진을 위해 청년과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일자리 카페와 올해 1월에 새롭게 단장한 영광군 일자리 지원센터를 연계 추진하여 청년 120명의 취업연계를 목표로 청년들의 취업역량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자 발굴 및 알선, 기업탐방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영광군 청년센터 청년공방을 통해 청년학교,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원데이클래스 운영,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청년공방거리, 청년 창업단지 등을 조



성하여 청년들을 위한 고용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200여 명의 안정적인 취업활동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사업, 청년 취업활동수당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체계와 기반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나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68명 운용

나주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병행,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을(말을)것으로 전망되나 포근한 날씨 속 산림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건축물 화재 등 인위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최근 관내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 총 21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등산객이 많은 금성산 숲길 등에 깃발 100점을 설치하고, 산불예방 방송을 매일 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대 시민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8명을 선발, 주요



숲길과 산불취약지역에도 배치한다.

시는 특히 나주대교 부근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을 설치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상시 운영해 초동진화에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임산통제구역 16개소(6,167ha), 등산로 중 산불위험이 높은 9개 구간(35km)을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을 목격한 시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공원과, 339-7222)로 즉시 신고해줄기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시 2020년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순천시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2020년도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순천시 문화예술단체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순천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지속적인 창작 등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시민의 문화 향수권 증대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지원(공연, 전시·경연, 책자 발간 등), 도내·외 문화예술 활동 및 교류 지원 사업이 있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및 예산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2020년도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2월 4일까지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순천시 문화예술과(061-749-6799)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도현 기자

여수시,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었다면...농치지 마세요”

여수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동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등 재산권 행사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법 시행 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원지적과(소과, 읍촌, 화양, 구 여천지역)나 중부민원출장소(도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27) 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문의하면 된다.

다.

여수시는 현재까지 438필지의 공유 토지 분할로 시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전남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남은 기간도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시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특별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지 분할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전남대학교 캠퍼스 투어 체험학습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30일 학생들의 자기 주도 진로 탐색활동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전남대학교 캠퍼스 투어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현장학습 체험과 더불어 진로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학생의 중요 과목 학습법, 자기주도 학습 코칭 등의 멘토링을 받는 시간을 가졌

다. 특히, 그룹 및 조별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도전의식으로 진로, 직업의식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함양했다.

체험에 참여한 모 학생은 “직접 캠퍼스를 둘러 보니 얼른 대학생이 되어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멘토

언니, 오빠에게 공부법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캠퍼스 투어로 용봉관(5·18 기념관, 전남대역사관), 각 단과대학, 중앙도서관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경계 분쟁 해결사 본격 가동

곡성군이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가동을 알렸다.

지난 31일 곡성군은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이번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해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 및 새 지적공부 작성이 진행 된다.

곡성군은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입면 총방지구와 곡성 대평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